

한국의 초록서비스에 대하여*

최 성 진**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한국 초록서비스의 발전방향 |
| Ⅱ. 한국 초록서비스의 특징 | 1. 새 초록지 |
| 1. 초록지의 주제분야 | 2. 조정 |
| 2. 초록지의 발행기관 | 3. 보완 |
| 3. 초록지의 내용 | 4. 그 밖의 측면 |
| 4. 초록지의 수명 | Ⅳ. 맺음말 |
| 5. 초록지의 언어 | |
| 6. 초록지의 발행 및 배포 | |

I. 머리말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행하는 것이다. 하나는 한국에서 전국범위로 제공되는 초록서비스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초록서비스가 발전하는 방향을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다. 첫번째 목적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주제, 발행기관, 초록기사의 내용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루려고 한다. 두번째의 목적은 한국에 최소한 어떤 초록지들이 필요하며 현재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미비되어 있는지, 있는 초록지들은 어느 정도로 완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불필요하게 중복된 것은 없는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여 한국 초록서비스의 현황을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된 현황을 1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이루려고 한다. 10년전의 상황은 본 연구자가 1984년에 조사하여 발표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 자료(최성진, 1984)에 기초하여 유추하려고 한다.

두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료는 (1) 전국범위로 배포되는 초록지를 발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행하고, (2) 그 중에서 실제로 전국적 또는 국제적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확인하고, (3) 확인된 초록지 발행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한다. 그렇게 수집되는 자료는 각 초록지의 주제분야, 발행기관, 수록내용, 창간년, 종간년(또는 최근호 발행년), 발행빈도, 종류, 수록기사의 작성자, 출판지, 언어, 편집방법, 인쇄방법, 배포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전국적 또는 국제적 초록지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도서관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초록지를 모두 조사하고, 누락되었을지 모를 초록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연감(한국대학연감, 1992; 연합연감, 1992)과 경제기획원 내부자료 속에 수록된 도서관, 정보관, 정부기관, 학술진흥기관, 학회, 협회, 대학, 연구기관, 산업기관 등 모두 1,194개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초록지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면담조사 활동에 관하여 훈련된 7인의 연구보조원이 확인된 초록지 발행기관을 방문하여 각 초록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연구에서 초록서비스라 함은 판매할 목적이든 무료로 배포할 목적이든 발행기관 밖의 이용자들에게도 배포할 의도로 발행된 초록지만을 말하며, 데이터뱅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에 흔히 포함되는 초록 기사를 통한 초록서비스,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요약한 글을 모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종류의 초록집, 도서관이나 정보관이 자체 이용자만을 위하여 작성 배포하는 초록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조사대상 초록지는 1984년에 발행되고 있었거나 그 후 1993년까지 창간된 초록지이며 이 기간중에 종간된 초록지도 포함한다. 여기서 초록지라 함은 최근에 출판된 논문 하나 하나 속에 보고된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결론, 연구의 부산물에 해당하나 새로운 사실 등을 간추려 기술하여 즉 초록 기사를 작성하여 정기로 또는 부정기로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배포하는 속보매체를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과거 특정 기간중에 출판된 논문의 요약문집, 정기 또는 부정기로 발행되는 전문분야의 해제류, 표제속에 "목록"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나 사실상 초록지의 범주에 속하는 문헌도 초록지로 간주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한국에는 많은 연구보고서가 생산되어 끊임 없이 축적되고 있지만 그것을 각 분야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초록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아직 초보적 수준이며 많은 분야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충실한 초록서비스를 마련할 의지와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초록서비스의 실상, 기회, 문제점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다. 이 연구의 성과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 초록서비스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초록지를 많이 구입하여 쓰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우선 국내 연구성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의 수행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II. 한국 초록서비스의 특성

정보봉사는 그것을 출현시킨 사회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발전한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정보봉사에는 형식상, 내용상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 초록서비스의 그러한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초록지의 주제분야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초록지들이 이 나라 각 분야의 초록요구를 고루 충족시키려면 도서분류표(예컨대 한국십진분류표)상 각 강에 해당하는 분야에 적어도 1 종의 초록지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실상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89강중 15 강(16.9%) 즉 15 개 광역 주제분야에서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한국의 많은(83.1%) 분야 연구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절한 초록서비스를 받지못하면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는 15개 분야를 제외한 74개 분야의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발표되는 자기 분야 또는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종 학술잡지나 기타 보고문헌을 직접 찾아 읽어야 한다.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

나라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연구자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겨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 연구활동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물론 표1의 일반주제로 분류된 19종의 초록지들이 자기 분야 초록지가 없는 74개 분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일반적 수준으로나마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주제의 초록지라 함은 두 개 이상의 주제(강)에 해당하는 기사들의 초록을 모아 발행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가리킨다.

부록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발행되는 19종의 일반 초록지중 14종(73.7%)은 대학의 석사·박사학위논문 초록집이며 그 수록대상이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한되어 있고, 2종은 특정 기관에 입수된 특정 지역 및 형태의 출판물 초록집, 2종은 특정 기관의 학술연구조성비로 수행된 연구과제 보고서의 초록집, 나머지 1종은 특정 대학의 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초록집이다. 결국 19종의 일반 초록지 가운데 여러 주제분야의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포괄적으로 전국의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에게 속보하는 진정한 의미의 일반 초록지는 아직 없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국의 연구자들은 15개 주제분야에서만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 74개 주제분야에서는 거의 또는 전연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대단위 주제분야별로 최소한 1종의 일반 초록지가 마련되거나 여러 주제분야에 대한 종합 초록지가 마련되어 초록서비스에 있어서 소외된 분야가 한 곳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학문분야는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 나라의 효율적 학문발전은 처지는 분야 없이 모든 분야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때 가능하며, 또 초록서비스가 없거나 부실하여 각 분야 연구자들이 자기 분야의 최근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환경일 때 그 분야의 학문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일반 주제의 초록지 19종을 제외한 53종의 초록지가 15개 주제분야에서 발행되고 있다. 피상적으로 이 15개 분야의 연구자들은 초록지를 통하여 최근의 국내 연구성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15개 분야에 대한 초록서비스는 각 분야에 고르게 제공되고 있는가? 편중하고 겹친 부분은 없는가? 있다면 당연히 조정되어 그런 부분이 제거되고 거기서 절약되는 자원이 다른 분야로 초록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1을 보면 15개 분야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사회과학분야의 10종, 순수과학

〈표 1〉 초록지의 주제분야별 분포

주 제		초록지종수	계	주 제		초록지종수	계
유	강			유	강		
	일반주제	19	19				
총	도서학, 서지학		1	기술과 과학	기술과학 일반	4	27
	도서관학, 정보과학				의학	2	
	백과사전				농업, 농학	7	
	일반언론집				공업일반, 토목공학	1	
	일반축차간행물, 연감				건축공학		
	일반학회, 단체, 박물관				기계공학	3	
류	신문, 잡지	1		전기공학	8		
	일반전집, 총서			화학공학	1		
	향토자료			제조업	1		
철	형이상학			예	가사, 가정학		
	철학의 세계				건축술		
	경학				조각		
	아시아 철학, 사상				공예, 장식미술		
	서양철학				서예		
	논리학				회화, 도화, 판화		
학	윤리학		술	사진술, 인쇄술			
	비교종교학			음악			
	불교			연극, 영화, 대중연예			
	기독교, 유태교			오락, 운동			
	도교			한국어			
	천도교, 단군교			중국어			
종	신도		어	일본어			
	바라문교, 인도교			영어			
	회교, 조로아스타교			독일어			
	기타 제종교			프랑스			
	사회과학일반	1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통계학	5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사	경제학	5	학	기타 제어			
	사회학, 사회문제	1		한국문학	1		
	정치학			중국문학			
	행정학			일본문학			
	법학			영문학			
	교육학	2		독일문학			
교	풍속, 민속학		문	스페인, 포르투갈문학		1	
	국방, 군사학			이탈리아, 루마니아문학			
	순수과학 일반	7		기타 제문학			
	수학			아시아			
	물리학	5		유럽			
	화학			아프리카			
순수과학	천문학		역	북아메리카			
	지학	2		남아메리카			
	광물학			오세아니아			
	생물과학	1		양극지방			
	식물학			지리			
	동물학			전기			
				총 계		72	

분야의 10 종, 순수과학분야의 15 종, 기술과학분야의 27 종, 문학분야의 1 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분야의 초록지가 52 종으로 15 개 분야에서 발행되는 초록지 53 종의 거의 전부(98.1%)를 차지한다. 순수과학과 기술과학분야의 초록지만으로도 전체 53 종의 79.2%를 차지한다. 이로써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소수 주제분야(9 개 주류중 3 개 주류)에 편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개 분야에서 발행되는 53 종의 초록지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25 종(47.2%)은 전기공학(8 종), 농학(7 종), 경제학(5 종), 물리학(5 종)분야의 4 개 분야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것은 주제를 더 세분하여 보더라도 한국의 초록서비스가 소수분야(15 개 강중 4 개 강)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들 속에 중복되는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부록1을 살펴보면 초록서비스가 편중되어 있는 이 4 개 분야의 초록지들 사이에 중복요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 분야들에서 발행되는 초록지가 주제상으로 또는 수록 대상 문헌상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 예로 전기공학분야에서 발행되는 8 종의 초록지중 5 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전자, 통신, 반도체분야의 특허문헌에 대한 초록이고, 2 종은 같은 연구소의 기술정보센터에 입수된 문헌에 대한 초록이고, 1 종은 한국전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학술논문 초록이다. 즉 전기공학분야에서 8 종의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7 종은 전자통신분야의 초록지이고 나머지 1 종도 한 연구소의 연구실적에 대한 초록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기공학의 여타 분야 연구자들은 사실상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 종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는 농학분야의 경우도 사정은 유사하다. 즉 7 종중 4 종은 매우 세분된 주제분야(작물보호, 토양비료, 잡업, 인삼)의 초록지이고, 2 종은 대학 부설 농학연구소의 연구실적에 대한 초록지이고, 1 종은 농학분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지이다. 결국 농학의 많은 다른 분야 연구자들은 국내의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종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경제학분야의 초록지중 3 종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토개발관계 연구과제 보고서 초록지이고, 1 종은 소비자관계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지이고, 1 종은 경영학분야 석사·박사학

위 청구논문에 대한 영문초록지이다. 5종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는 물리학분야의 초록지는 에너지와 자원관계 연구과제 보고서 초록지 뿐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비교적 많은 종수의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는 주제분야에서도 초록지의 주제나 수록된 문헌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소수 해당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연구자들은 초록지를 1종도 가지지 못한 74개 분야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2. 초록지의 발행기관

초록지는 본래 도서관에 입수되는 출판문헌들의 주제와 내용을 간추려서 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서관이 발행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도서관과 정보관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부분의 초록지가 도서관이나 정보관 밖에서 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초록지 발행기관으로 학회와 협회,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관, 정부기관, 출판사, 도서관, 정보관을 들 수 있으나 어느 기관이 얼마나 초록지를 발행하느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관이 초록지를 발행하며, 기관의 종류별로 본 발행 초록지 종수는 어떠하며, 한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초록지는 몇 종이나 되는지를 살펴본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초록지는 주로 연구기관, 대학, 출판사의 세기관에서 발행되고, 산업기관, 정보관, 정부기관, 학술진흥기관, 도서관, 학회 등에서도 발행된다. 여기서 대학은 연구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초록지는 대부분(54종, 75%)이 연구기관에서 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적 특성이다. 보코와 버니어(Borko ; Bernier, 197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학회와 협회에서 발행되는 초록지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나(Keenan ; Elliot, 1973) 한국의 경우는 단지 1종(1.4%)을 발행하는데 지나지 않아, 단순히 수량적으로만 보면 초록지 발행에 있어서 학회와 협회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상업출판사가 발행하는 초록지가 전체 초록지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인데(FID, 1974) 한국의 상업출판사도 5종(7.0%)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어 상업출판사의 경우는 세계적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초록지 발행기관의 종류

기관의 종류	발행 초록지		참고사항
	수	%	
연구기관	31	43.0	
고등교육기관	23	32.0	
출판사	5	7.0	
산업기관	2	3.0	
정보관	2	3.0	
정부기관	2	3.0	
학술진흥기관	2	3.0	
도서관	1	1.4	
학회와 협회	1	1.4	
기타	3	4.2	군기관 1, 소비자단체 1, 언론기관 1
계	72	100.0	

표3은 한국의 44 개 초록지 발행기관중 몇 종의 초록지를 발행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3을 보면 한 눈으로 알 수 있듯이 초록지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초록지 종 수의 분포에는 브래포드의 분산현상이 분명하다. 즉 44 개 초록지 발행기관중 2 개 기관(4.5%)이 발행하는 초록지가 11 종(15.3%)이고, 7 개 기관(15.9%)이 발행하는 초록지가 26 종(36.1%)이고, 16 개 기관(36.4%)이 발행하는 초록지는 44 종(61.1%)이다. 44 개 초록지 발행기관중 반이 넘는 28 개 기관(63.6%)은 1 종씩을 발행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한국의 초록지 발행활동은 소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2 종 이상의 초록지를 발행하는 위의 16 개 기관중 14 개 기관이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이다. 앞에서 한국의 초록지가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발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한국의 초록지 발행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중요한 위치는 여기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표 3〉 한 기관이 발행하는 초록지의 종 수

한 기관이 발행하는 초록지 종 수	발행기관 수	초록지 종 수 누계	
		수	%
7	1	7	9.7
4	1	11	15.3
3	5	26	36.1
2	9	44	61.1
1	28	72	100.0
계	44	72	100.0

3. 초록지의 내용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종류, 수록자료의 종류, 수록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초록지는 그 용도나 초록기사의 내용에 따라 개요초록지와 기술초록지로 나눈다. 전자는 문헌 내용의 주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독자에게 문제의 성격과 범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주요 데이터와 발견된 사실, 결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리며, 후자는 개요초록에 포함시킬만한 사항들을 다시 추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는 몇가지를 가려내어서 보통 전보문체로 간결하게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요초록지는 연구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원문을 읽지 않고도 자기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들을 대충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술초록지는 독자들이 초록된 문헌의 존재를 알고 그 문헌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다. 그렇게 두 종류의 초록지는 용도가 서로 다르고 보편적 관계이므로 각 분야에 적어도 1종 이상 발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표4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대부분이(81.9%) 개요초록지이며, 기술초록지는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18.1%). 결국 89개 연구분야(강)중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는 15개 분야의 연구자들은 어떤 논문이 최근 자기분야에 출판되었으며, 그것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도 대개의 경우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리는 개요초록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표 4〉 초록지의 종류

종 류	초록지 종 수	
	수	%
기술초록지	13	18.1
개요초록지	59	81.9
계	72	100.0

발행되는 초록지의 종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초록지에 자료가 포괄적으로 수록되지 않는다면 종 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종류와 형태의 문헌만을 수록한 많은 초록지보다 어느 한 분야에서 여러 종류와 형태의 문헌으로 발표된 연구성과들을 포괄적으로 수록한 1 종의 초록지가 독자에게는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경우를 살펴본다.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2 종의 초록지중 두 종류 이상의 자료를 수록한 종합적 성격의 초록지는 13 종(18.1%)뿐이고 나머지 59 종(81.9%)은 특정 종류의 자료만을 수록한 초록지이다. 즉 학위논문 초록지가 25 종(34.7%), 연구보고서 초록지가 20 종(27.8%), 학술잡지기사 초록지가 7 종(9.7%), 특허 초록지가 7 종(9.7%)이다.

어느 한 종류의 자료만을 수록한 초록지가 무익하다거나, 그것이 종합초록지보다 언제나 덜 유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특허초록지 이용자는 종합초록지가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특허초록지를 따로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특허문헌은 과학기술문헌인 동시에 법률문헌이고, 특허초록 이용자는 특허문헌 이외의 학술잡지기사, 연구보고서 등 관련 주제 문헌에 통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위논문, 연구과제보고서, 학술잡지기사에 대한 초록지를 각각 따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삼자가 모두 연구 결과로 얻은 발견이나 발명을 기술한 것이며, 그런 발견이나 발명을 한 곳에서 찾는 것이 독자에게는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많은 종 수(25 종, 34.7%)를 차지하는 학위논문초록지의 존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학위논문은 학생들이 수행한, 어떤 의미에서 다소 미숙한 연구의 보고서이며, 그 중에서 우수한 것은 후에 학술잡지기사로 출판될 것이므로 그런 학위논문에 대한 초록지가 다른 모든 종류의 초록지보다 더 많이 발행

된다는 것은 의견상 부자연스럽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위논문 초록지가 많이 발행되는 것은 주로 각 대학에서 그 대학이 수여한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지를 따로 발행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위를 수여하면서도 아직 학위논문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많이 있으므로 이 관행이 계속된다면 학위논문 초록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관습이 독자의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독자는 대개의 경우 학위논문에도 포함된 사실에 관심이 있으며, 그 학위논문이 나온 대학명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학위논문 초록지는 각 대학이 따로 발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처럼 대학 밖의 어느 한 기관, 예컨대 한 출판사가 전국의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하나의 종합 학위논문 초록지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 초록지 수록자료의 종류

자료의 종류	초록지 종 수	
	수	%
종합(두종류 이상의 자료)	13	18.1
학위논문	25	34.7
연구과제보고서	20	27.8
학술잡지기사	7	9.7
특허명세서	7	9.7
계	72	100.0

초록지는 각 연구분야에 종합적 성격의 것이 1 종씩 발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세계적으로 학회와 협회에서 발행하는 초록지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표6을 보면 한국의 경우는 국내 단일 분야의 연구성과를 알리는 초록지가 21종으로 가장 많기는 하나 전체(72종)에 대한 비율은 29.2%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전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지 11종을 합하더라도 44.5%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범주의 초록지는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단일 간행물에 대한 초록지(2종, 2.8%)와 국내 단일 연구소의 실적에 대한 초록지(19종, 26.4%)도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가치가 다수 독자에게는 적은 것이다. 외국자료에 대한 초록지는 국내 자료에 대한 초록서비스가 기본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현

재의 수준으로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국가나 국제 초록지 발행기관의 서비스에 한동안 의존하면서 국내연구실적에 대한 초록서비스의 개선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표 6〉 초록지 수록기사의 범위

자료의 종류	초록지 종 수	
	수	%
국내 단일간행물	2	2.8
국내 단일연구소의 실적	19	26.4
국내 단일분야	21	29.2
국내 전분야	11	15.3
외국 단일분야	6	8.3
외국 전분야	1	1.4
국내외 단일분야	9	12.5
국내외 전분야	3	4.1
계	72	100.0

4. 초록지의 수명

72 종의 조사대상 초록지중 1984년에서 1992년까지 중간된 8 종의 초록지를 제외한 64 종이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 64 종의 초록지중 32 종(50.0%)이 지난 5 년내에 창간되었으며, 46 종(72.0%)이 10 년내에, 54 종(84.4%)이 15 년내에, 59 종(92.2%)이 20 년내에 창간되었다(표7 참조). 현재 발행중인 초록지는 단지 1 종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 25 년내에 창간된 비교적 새로운 초록지이다. 예외가 된 그 1 종의 초록지는 1957년에 경북대학교가 창간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집”이며 36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표7을 역으로 해석하면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25 년 전부터 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20년 전에 5 종이던 초록지가 5 년 후에는 10 종

으로 이전 대비 100.0% 늘어났고, 다시 5년 후에는 18 종으로 이전 대비 80.0% 늘어났고, 다시 5년 후에는 32 종으로 이전 대비 77.8% 늘어났고, 다시 5년 후에는 64 종으로 이전 대비 100.0% 늘어났다. 이 기간은 한국에서 연구개발투자,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고, 연구개발 종사자가 급증하고, 따라서 연구보고문헌이 급증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급속한 초록지 증가현상은 이 기간중의 초록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식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초록서비스 수요가 어느 수준으로 충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표 7〉 현재 발행중인 초록지의 연령

연령(연)	초록지 종 수	계	
		수	%
5년 이하(87년이후)	32	32	50.0
6~10(82~86)	14	46	72.0
11~15(77~81)	8	54	84.4
16~20(72~76)	5	59	92.2
21~25(67~71)	4	63	98.4
26년 이상(66년 이전)	1	64	100.0
계	64	64	100.0

〈표 8〉 1984-92년 기간중 중간된 초록지의 수명

수 명(연)	초록지 종 수	계	
		수	%
1	4	4	50.0
2	2	6	75.0
3			
4			
5			
6~10	1	7	87.5
11~15	1	8	100.0
계	8	8	100.0

표 8은 1984년에서 1992년까지의 기간중에 종간된 8 종의 초록지가 창간된지 몇 년 후에 종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표 8에 나타난 바와같이 종간된 8 종의 초록지중 6 종(75.0%)은 창간 후 2 년내에 종간되었고, 4 종(50.0%)은 창간호만 내고 그 해에 종간되었다. 대부분의 초록지는 축차간행물의 형태로 발행되며 영구히 발행할 의도로 시작하나 다른 축차간행물과 마찬가지로 발행 초기에 거품현상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경우 그러한 현상은 2 년 동안에 일어난다. 즉 2 년이 지난 초록지는 발행이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초록지의 언어

초록지에 수록된 초록기사가 어떤 언어로 쓰였느냐의 문제는 독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독자에 대한 그 초록지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령 학위논문이나 학술잡지기사의 말미에 붙인 외국어 초록을 그대로 수록한 초록지는 그 언어를 모르는 독자에게 무익한 것이다. 한국에서 국내용으로 발행되는 초록지의 바람직한 언어는 물론 한국어이다. 이것은 외국어로 출판된 문헌에 대한 초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독자가 모르는 외국어로 출판된 논문이라도 그 초록기사가 아는 언어로 작성되면 다소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적어도 그 논문의 번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언어는 어떤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9를 보면 72 종의 초록지중 한국어로 된 것이 34 종(47.2%)으로 전체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38 종은 외국어로 된 것이 19 종(26.4%),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용한 것이 19 종(26.4%)임을 알 수 있다. 이 38 종의 초록지가 외국어로, 혹은 한국어와 외국어가 혼용되어 발행되는 것은, 국내 연구성과를 외국 연구자들에게 소개할 의도로 발행되는 3 종(2.6%)의 영문 초록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초록지 발행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논문 말미에 붙인 외국어로 된 저자초록을 그대로 편집하여 발행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발행되는 상당 수의 초록지는 독자의 편익이 아닌 공급자의 편익 위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이다. 초록지 독자중에는 외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외국어로 된 초록지가 전적으로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존 외국어초록지는 장차 한국어초록지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초록지의 언어

언어	초록지 종수	
	수	%
한국어	34	47.2
외국어	19	26.4
혼용(한국어+외국어)	19	26.4
계	72	100.0

표10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외국어로 된 초록지의 언어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10에 분명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19 종의 외국어 초록지는 영어와 일본어만으로 되어 있으며, 1 종의 일본어초록지를 제외한 18 종이 영어로 되어 있다.

<표 10> 초록지의 외국어 분포

외국어	초록지 종수	
	수	%
영어	18	94.7
일본어	1	5.3
계	19	100.0

한국에서 발행되는 외국어초록지에 있어서 영어의 편중현상은 표11에서도 분명하다. 즉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용하여 발행되는 19 종의 초록지중 1 종만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 편중현상은 한국의 초록

<표 11> 혼용(한국어+외국어)초록지의 언어분포

언어	초록지 종수	
	수	%
국어+영어	18	94.7
국어+여러 외국어	1	5.3
계	19	100.0

지 이용자 즉 각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정당화 되기 어렵다. 설사 많은 연구자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어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초록지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초록지 발행자들은 그 소외된 소수 연구자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6. 초록지의 발행 및 배포

끝으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초록기사 작성자, 초록지의 발행빈도, 수록기사의 출판지, 편집 및 인쇄방법, 배포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초록기사는 잘 훈련된 전문요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문요원은 기사작성 지침서에 따라 정확한 언어로, 일관된 체제와 길이의 초록기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작성한 초록기사는 그런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고, 주제분석도 자기 관심과 편견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고, 또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로 쓰여져 그 외국어를 읽지 못하는 독자에게는 사익 상 무용하다. 그러나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중 42 종(64.5%)은 그 기사가 저자초록이고, 초록지발행기관이 전문요원을 시켜 자체 작성한 기사는 27 종(37.5%)이다. 위의 42 종에 수록된 저자초록은 초록지 용으로 따로 작성된 기사가 아니고, 이미 학술잡지기사나 학위논문에 첨부되어 있는 초록을 수집하여 대부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초록지는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산만하고 일관성을 결여한다. 초기 단계에서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저자초록을 수록하기로 한 초록지라도 환경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저자초록을 수정하여 수록하거나 전문

〈표 12〉 초록기사의 작성자

작 성 자	초록지 종 수	
	수	%
저 자	45	62.5
전문요원	27	37.5
계	72	100.0

요원에 의한 제3자초록으로 변환하는 조치를 취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빈도는 초록지의 유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초록지는 어느 분야에서 최근에 출판된 연구실적을 요약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속보하는 서비스이므로 그 속보기능이란 관점에서 발행빈도가 높은 일간, 주간, 격주간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초록지는 어느 분야의 연구실적을 한 데 모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데 모으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또 내용을 요약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일간, 주간으로 발행되는 초록지는 거의 없다.

한편 연간, 격년간 초록지는 한 데 모으는데는 적합하나 초록지의 다른 중요한 기능인 속보기능이 매우 약해져서 유용성이 적다. 결국 세계의 초록지 발행기관들은 속보성도 살리고 연구실적을 한 데 모으는 기능도 살리는 선에서 타협하여 주로 월간, 격월간, 계간으로 초록지를 발행한다. 부정기로 발행되는 초록지는 일반적으로 발행빈도가 낮아 속보기능이 약하며, 3년 또는 5년만에 발행되는 초록지도 있다. 그렇게 발행빈도가 낮은 초록지는 해당 문헌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발행되는 해제와 사실상 같은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표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월간, 격월간, 계간이 14종으로 전체의 19.4%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표 13〉 초록지의 발행빈도

발행빈도	초록지 종수	
	수	%
월간	7	9.7
격월간	5	6.9
계간	2	2.8
연간	18	25.0
격년간	3	4.2
부정기	37	51.4
계	72	100.0

58 종(80.6%)은 연간, 격년간, 부정기 초록지로 발행빈도가 낮고 따라서 속보성이 약한 것이다. 특히 부정기 초록지가 37 종(51.4%)으로 전체의 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정기로 발행되는 초록지는 대체로 발행빈도가 낮아 속보성이 약하고, 또 언제 다음 호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연구자들이 한 분야의 최근동향을 파악하는데 안심하고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14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에 수록된 기사들의 출판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견상으로는 조사대상 72 종의 초록지중 국내에서 발표된 기사를 수록한 것이 55 종(26.4%), 외국에서 발표된 기사를 수록한 것이 7 종(9.7%), 국내외에서 발표된 기사를 같이 수록한 것이 10 종(13.9%)이다. 여기서 국내에서 발표된 기사를 수록한 초록지를 제외한 17 종(23.6%)의 초록지에 수록된 기사들도 대개 한국인 또는 한국인의 관심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논문자료사에서 발행하는 “외국박사학위논문초록”은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취득한 국내학자의 외국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을 수록한 것이며, 한국화섬협회에서 발행하는 “화섬특허정보초록”은 일본 화섬회사들이 등록한 특허중 국내 화섬산업과 관련된 것을 수록한 것이다. 초록지 수록기사의 출판지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초록지는 대체로 무난한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본다.

〈표 14〉 초록지 수록기사의 출판지

발행지	초록지 종수	
	수	%
한국	55	76.4
외국	7	9.7
국내외	10	13.9
계	72	100.0

초록지는 속보성이 기본적 요소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래식 편집이나 인쇄방식으로는 초록지의 효율적 발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1960년대에 정보봉사분야 최초의 전산기 응용 시도가 초록지와 색인지를 생산할 출판시스템의 개발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오늘날 많은 초록지가 컴퓨터로 통제되

는 사진식자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표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래식 편집 및 인쇄방법으로 발행되는 것(42, 58.3%)과 편집 및 인쇄 과정이 전산화된 것(30 종, 41.7%)이 거의 반반이다. 아직도 재래식 편집 및 인쇄 방법으로 발행되는 초록지가 약간 많은 것이 사실이나 최근 수년간 전산화를 성취한 초록지가 급증하고 현재 전산화를 계획중인 초록지가 많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멀지 않아 재래식으로 편집 인쇄되는 초록지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표 15〉 초록지의 편집 및 인쇄방법

방 법	초록지 종 수	
	수	%
재 래 식	42	58.3
전 산 화	30	41.7
계	72	100.0

끝으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배포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떻게 배포하느냐에 따라 독자가 초록지를 쉽게 입수할 수도 어렵게 입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포방법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초록지가 판매되고 값이 비싸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입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잘 조직된 전국 서적판매상을 통하여 잠재적 독자층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져서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적다. 한편 무료로 배포되는 초록지는 돈이 들지 않아서 좋지만 배포대상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에는 노출되지 않아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은 돈이 드는 단점보다 물론 큰 것이다.

앞의 표2에서 본대로 한국에서 초록지를 발행하는 기관은 비영리기관인 연구기관이 대부분(75%)이고 출판사는 소수(7.0%)에 지나지 않는다. 초록지 발행에 있어서 상업출판사의 역할이 이렇게 약하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판매되는 초록지는 7 종으로 전체의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표16 참조). 즉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대부분(65 종, 90.3%)은 발행기관이 선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이런 상황에서 초록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려면 무료로 배포되는 초록지를 전국적으로 추적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잠재적 초록지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초록지 인지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6〉 초록지의 배포방법

방 법	초록지 종 수	
	수	%
관 매	7	9.7
무료배포	65	90.3
계	72	100.0

Ⅲ. 한국 초록서비스의 발전방향

전 장에서는 1984년 이후 한국의 초록서비스가 발전하여 온 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여 이 나라 초록서비스의 특성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그러한 시도 속에서 초록서비스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단정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 초록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단지 10년 동안의 데이터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1984년에 조사된 데이터(최성진, 1984)를 합하여 더 긴 기간에 나타난 더 안정된 발전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새 초록지

1984년에는 3개 주류에 해당하는 주제분야에서 모두 11종의 초록지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배포되고 있었다. 그 후 1993년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초록지는 72종으로 늘어났다. 즉 지난 25년간 초록지의 종 수는 계속 비슷한 비율로 5년 마다 약 80~100%씩 증가하여 왔다(표7 참조). 이 증가속도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늘어나는 초록지가 몇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1984년에 한국에서 발행된 11종의 초록지중 일반주제의 초록지 2종을 제외한

9 종이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의 3 개 주류에서 발행되었다. 10 년 후에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행 초록지 종 수가 72 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반주제의 초록지 19 종을 제외한 53 종이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문학의 4 개 주류에 집중되어 있다.* 즉 10 년간에 초록지가 61 종이나 늘었으나 초록지가 발행되는 주류는 1 개가 늘어나는데 그쳤고, 그나마 추가된 문학류에는 1 종의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그 종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초록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고 새로이 초록서비스를 받는 분야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내용과 방법상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의 3 개 과학분야가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초록서비스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록지가 없는 다른 모든 분야에도 각각 1 종 이상의 새로운 전문 초록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초록지가 없는 분야의 연구자들은 연구보고서 원문을 읽지 않고서는 국내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알 길이 없으며, 그것이 연구의 중복과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초록지가 1 종도 발행되지 않는 5 개의 주류에 초록지를 발행하여 배포하는데 있어서 일본 국립학술정보센터(NACSIS)와 호주 국립과학산업연구소(CSIRO) 정보센터의 기능이 하나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 설립되어 있는 학회들에게 해당 분야의 초록지를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재정적으로 초록지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군소 학회들에게는 초록지 원고만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발행하는 일은 지정된 어느 국고보조기관이 맡아서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과 호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가능한 대안은 현재 초록지가 간행되고 있지 않는 각 분야(주류)에 일반주제의 초록지를 1 종씩 발행하는 것이다. 발행사업은 각 분야의 대표적 학회에 맡기고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주제의 초록지가 그 성격상 각 연구자의 관심 밖의 부분을 많이 포함하게 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일시에 많은 새 전문 초록지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과도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전 조사보고서(최성진,

*표1에는 총류에 속하는 신문학분야에서 1 종의 초록지가 발행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통상구분법에 따라 이것이 사회과학류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984)에서 일반주제의 초록지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다행히 지난 10년간 그것은 2종에서 19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반주제의 초록지 증가 경향이 현 단계에서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 없으나 전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19종의 일반초록지중 대부분(14종, 73.7%)은 대학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초록집이고, 나머지 5종도 특정 지역이나 형태의 출판물, 특정 기관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등의 초록집으로 여러 주제분야의 연구성과를 포괄적으로 속보하는 바람직한 성격의 일반 초록지가 아니다.

2. 조 정

초록지들 사이의 내용상 중복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는 혼동을 주는 것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적 수준의 조정기능을 통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발행되는 초록지의 종 수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조정이 더욱 중요하다. 부록1에 표시된 각 초록지의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사하여 보면 몇 종의 초록지가 내용상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회도서관이 발행하는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은 표제가 목록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인문·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초록집이다. 이것은 (1)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14종의 학위논문초록집과 인문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부분에서 완전히 중복되고, (2) 1980년 이후 한국인이 국내외에서 받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집인 학술자료개발원의 “인문과학논문초록”, “사회과학논문초록”, “경영과학논문초록”의 내용과 국내 박사학위부분에서 완전히 중복되고, (3) 1962년 이후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교육학분야의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집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학 학위논문초록집”의 내용과 박사학위부분에서 완전히 중복되고, (4)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소비자 관련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집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관련학위논문초록집”의 내용과 박사학위부분에서 완전히 중복되고, (5)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신문학분야의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집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전국각대학신문학석·박사학위논문요약집”의 내용과 박사학위

부문에서 완전히 중복된다.

앞으로 국회도서관이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인문·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논문에만 초록기사를 붙여온 지금까지의 정책을 과학·기술분야와 석사학위 논문에 확대 적용한다면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유용성이 한층 높아질 뿐 아니라 위에서 열거된 18 종의 초록지중 대부분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초록지 발행 자원이 절약되어 다른 새 초록지를 발행할 여력이 생길 것이고, 한편 이용자들은 국내 학위논문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어 크게 환영할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국내에서 발표된 모든 환경분야 연구논문의 초록집인 “환경분야연구논문초록집”을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동 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과제보고서의 초록집인 “국립환경연구원보”도 계속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보기 어렵다. 후자는 동 연구원의 실적 홍보용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 내용이 전자와 거의 중복되어 초록지의 가치가 적고 이용자의 주의만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3. 보 완

위에서 지적된 몇 개의 중복분야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내용상의 중복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초록지들의 주제가 너무 세분되어 있어 그것들이 어느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초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표1 참조). 이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가 대부분 어느 한 대학이나 연구소가 주로 자체의 연구실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초록지는 자체의 실적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 대한 초록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초록”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출판된 연구보고서의 초록집이 아니라 전국에서 출판된 국토개발분야 연구보고서의 초록집으로 수록내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행하는 “환경분야연구논문초록집”이 그러한 초록지의 좋은 예이다(Ⅲ.2 참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연구과제초록집”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과제 보고서의

초록집이 아니라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학분야의 모든 연구보고서 초록집으로 수록 내용이 확대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행하는 “소비자관련학위논문초록집”은 소비자분야의 학위논문 초록집이 아니라 국내에서 출판된 소비자분야의 모든 종류와 형태의 학술논문 초록집으로 수록내용이 확대되고, 한국전기연구소가 발행하는 “연구보고초록집”은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학술논문 초록집이 아니라 전국에서 출판된 전기분야의 학술논문 초록집으로 수록내용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다른 많은 초록지들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요컨대 한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알리거나 한 분야의 학위논문과 같은 한 종류의 문헌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종류의 초록지는 그 수록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유용성이 적다. 불행히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II.1 참조). 현재의 세분되고 제한된 수록내용을 해당 분야의 출판문헌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확대 개편하는 일이 한국초록지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한국에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3종의 영문초록지가 있다. 그것은 “Korean Scientific Abstracts”, “Korean Medical Abstracts”, “Korean Patent Abstracts”이다(부록1 참조). 이 초록지들, 특히 처음의 두 초록지는 그동안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 두 초록지가 창간된 1968년과 1970년에 비하여 현재의 학술적 활동은 그 수준이나 생산성에 있어서 별로 달라졌지만 두 초록지의 수록내용과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두 초록지는 실제로 출판된 연구문헌중 매우 적은 비율의 문헌만을 다루게 되어 이제는 국제자료교환용 간행물 이상의 가치는 거의 없다. 특히 자연과학분야의 종합초록지라고 하는 것이 과학 후진국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Korean Scientific Abstracts”지는 당연히 생물학초록, 물리학초록, 화학초록 등 몇 종의 전문분야 초록지로 나누어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Korean Medical Abstracts”지는 그 수록문헌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발행빈도도 계간에서 월간이나 격월간으로 바꾸어 유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그 밖의 측면

한국 초록서비스의 발전방향과 관련된 그 밖의 몇 가지 측면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초록지 발행기관에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1984년에 10 개의 초록지 발행기관 중 6 개(60.0%)가 연구기관이었으며, 이것이 1993년에는 29 개(65.9%)로 늘어났다. 초록지를 발행하는 연구기관의 수는 이처럼 대폭 늘어났으나 1993년의 44 개 초록지 발행기관에 대한 비율은 65.9%로 10 년전(60.0%)에 비하여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중에 초록지를 발행하기 시작한 연구기관은 대부분 자체의 연구실적을 알릴 의도로 초록지를 발행하였으며, 이것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기간중에 나타난 특기할만한 사실은 3 개의 상업출판사가 초록지 발행기관 대열 속에 들어온 것이다. 10 년 전에는 초록지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없었다. 출판사의 출현으로 이제 한국 초록서비스분야에는 팔릴 수 있는 양질의 초록지가 나타나고, 그것이 수월성을 추구하고, 불가피하게 초록지 발행사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게 됨으로 다른 기존 초록지들이 질적 개선을 이루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984년에 초록지를 발행하던 10 개의 기관중 2 종의 초록지를 발행한 기관은 1 개 뿐이고 나머지 9 개 기관은 모두 1 종씩을 발행하였다. 1993년에는 이러한 발행기관간의 평등관계가 무너졌다. 즉 7 종의 초록지를 발행하는 기관 1 개를 포함하여 3 종 이상을 발행하는 기관이 7 개(15.9%)나 출현하였으며, 이 7 개 기관이 발행하는 초록지가 모두 26 종(36.1%)이다. 한국의 초록지 발행기관은 이제 많은 종 수를 발행하는 소수 기관과 1 종 또는 2 종씩을 발행하는 다수 기관으로 양분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기술초록과 개요초록의 비율은 10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1984년에 발행된 11 종의 초록지중 기술초록은 2 종(18.2%), 개요초록은 9 종(81.8%)이었으며 1993년에는 모두 72 종의 초록지중 기술초록이 13 종(18.1%), 개요초록이 59 종(81.9%)이다. 그 동안 기술초록과 개요초록의 종 수가 각각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양자의 비율은 약 4 : 1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한국에서는 개요초록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초록지에 수록되는 자료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초록서비스의 최근의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1984년에 여러 종류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록

한 초록지가 11 종의 초록지중 가장 많은 4 종(36.4%)이고 학위논문과 연구과제 보고서만을 수록한 초록지가 각각 3 종(27.3%)이었으나 1993년에는 72 종의 초록지중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록한 것이 13 종(18.1%), 학위논문을 수록한 것이 가장 많은 25 종(34.7%), 연구과제보고서를 수록한 것이 20 종(27.8%)이다. 즉 지난 10 년간 여러 종류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록한 초록지의 비율은 줄고 학위논문을 수록한 초록지의 비율은 늘었다. 이것은 반대이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한 나라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중 학위논문초록지의 종 수가 가장 많을 이유가 무엇이며,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학위논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한 예로 약 3,000 개의 대학을 가진 미국에는 학위논문초록지가 1 종밖에 없다. 어느 한 출판사가 국내 모든 대학의 학위논문을 수집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초록지 발행과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비능률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각 초록지에 수록되는 기사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국 초록서비스의 최근의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1984년에 국내 전분야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수록한 초록지가 11 종의 초록지중 2 종(18.2%), 국내 어느 한 분야의 기사를 수록한 초록지가 6 종(54.5%), 국내 어느 한 연구소의 실적을 수록한 초록지가 2 종(18.2%)이었으나 1993년에는 72 종의 초록지중 국내 전분야의 기사를 수록한 것이 11 종(15.3%), 국내 어느 한 분야의 기사를 수록한 것이 21 종(29.2%), 국내 어느 한 연구소의 실적을 수록한 것이 19 종(26.4%)이다. 국내 어느 한 분야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수록한 초록지의 비율은 대폭 줄고, 국내 어느 한 연구소의 실적을 수록한 초록지의 비율은 늘었다. 즉 이용가치가 많은 것은 줄고 이용가치가 적은 것은 도리혀 늘었다. 이 문제는 초록지를 발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자체의 연구실적을 수록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출판되는 모든 문헌을 수록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연구소 초록지가 주제분야 초록지로 변환되고, 한국의 초록서비스가 현재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즉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초록지의 발행빈도별 분포는 10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바람직한 월간, 격월간, 계간 초록지는 1984년에 전체의 18.2%이었는데 1993년에는 19.4%로 실질적 증가가 없다. 속보성이 약한 연간, 격년간, 부정기 초록지의 비율은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 또한 지난 10 년 동안 실질적 감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발행빈도를 높여 초록지들의 유용성을 높이는 일이 초록서비스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10년간 초록지의 편집 및 인쇄방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전산화된 방법으로 편집하고 인쇄하여 발행된 초록지가 1984년에는 1종(9.1%)에 불과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30종(41.7%)이다. 이러한 전산화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되어 10년 후에는 종이에 원고를 쓰고 활자를 골라 조판하는 재래식 방법으로 발행되는 초록지가 아마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초록지 발행과정의 전산화는 단지 초록지 발행에 소요되는 돈의 절약과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물로 얻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전문초록지를 많이 발행할 수 있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발행되었거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모든 초록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984년에 조사한 데이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초록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초록서비스의 일반적 특성과 발전방향을 밝힐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과 주요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연구자들은 소수 주제분야에서만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제분야에서 그러한 봉사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초록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수 주제분야에서도 초록지들이 주제상으로 또는 수록대상 문헌상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 분야의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2) 전문초록지가 발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다소간 도움이 될 일반초록지가 과거 10년간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대학의 석사·박사학위논문 초록지이고 나머지도 특정 지역이나 형태의 출판물, 특정기관

의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등의 초록지로 여러 주제분야의 연구성과를 포괄적으로 속보하는 바람직한 성격의 일반초록지가 아니다.

- (3) 한국의 초록지는 대부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행되며 출판사, 산업기관, 도서관, 정보관, 정부기관, 학술진흥기관, 학회 등에서도 발행된다. 소수 기관이 많은 종 수의 초록지를 발행하며, 다수 기관이 1 종 또는 2 종의 초록지를 발행한다. 많은 종 수의 초록지를 발행하는 기관중 대부분은 대학과 연구기관이다.
- (4) 10 년 전까지 초록지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없었으나 지금은 3 개의 출판사가 초록지 발행기관의 대열 속에 들어 와 있다. 출판사의 출현으로 이제 한국 초록서비스분야에는 수월성 추구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쟁적 요소가 도입되어 기존 초록지들이 질적 개선을 이룰 계기가 마련되었다.
- (5)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종류 가운데 학위논문 초록지가 가장 많고 다음이 연구보고서 초록지, 학술잡지기사 초록지, 특히 초록지의 순이다. 학위논문 초록지가 많이 발행되는 주요 이유는 각 대학이 <여한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지를 따로 발행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한 출판사가 전국의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하나의 종합 학위논문 초록지를 발행하고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한국에서 발행되는 많은 초록지가 국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그 수록범위가 제한되어 유용성이 적다. 이 연구기관들이 현재의 세분되고 제한된 내용을 담은 초록지를 해당 분야의 모든 연구성과를 포괄적으로 담은 초록지로 확대 개편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 (7)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종 수는 지난 25 년간 5 년 마다 77.8~100.0%의 높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종간된 초록지중 대부분은 창간후 2 년 내에 종간되었고, 창간호만 내고 종간된 초록지도 반이나 된다.
- (8) 한국에서 국내용으로 발행되는 초록지의 바람직한 언어는 한국어이나 실제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중 절반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외국어로 된 것과,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용한 것이다. 외국어 초록지는 1 종의

일본어 초록지를 제외하면 모두 영어로 된 것이다.

- (9)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월간, 격월간, 제간이 전체의 약 20%이고 나머지는 연간, 격년간, 부정기 초록으로 발행 빈도가 낮고 따라서 속보성이 약하며 후자중 부정기 초록이 전체의 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 초록지의 대부분은 발행기관이 선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약 10%의 초록지만이 판매된다. 초록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료로 배포되는 초록지를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잠재적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 (10) 지난 10 년간 전산화된 방법으로 편집, 인쇄되는 초록지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되어 10 년 후에는 아마 재래식으로 만들어지는 초록지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전산화는 단지 초록지 발행의 기술적, 능률적 개선을 의미하지 않고 부산물로 얻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전문초록지를 발행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최성진. 우리나라의 초록시스템－현황, 문제 및 개선방향. 한국비블리아. 1984 ; 6 : 133-60.

Borko, H. ; C.L. Bernier. *Abstract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 Academic Press, 1975.

FID.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FID News Bulletin. 1974 ; 24 : 3-4.

Keenan, S. V. ; M. Elliot. *World Inventory of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Special Libraries. 1973 ; 64 : 145-50.

<부록 1> 초록지 일람표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출간 년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년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작성자	수록기사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1	교육부 학술연구 조정비 지원과제 논문초록집	한국학술진흥 재단	1982	1992	진분야	연간	교육부 학술연구조정비에 의한 연 구과제 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친산화	비매품	
2	박사·석사학위는 논문초록집	인하대학교 (대학원)	1984	1984	진분야	부정기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된 석사 · 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제래식	비매품	
3	박사학위논문요 약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1991	진분야	연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된 박사 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제래식	비매품	1959년에서 1988년까지의 논문은 한글 에, 그후는 연 간으로
4	외국박사학위는 논문초록	논문자료사	1989	1989	진분야	부정기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취득한 국 내학자의 외국박사학위 청구 논문	개요 초록	진문 요원	외국	외국어	친산화	판매	
5	일본자료요약월 보	동북아시아 정보문화센 터	1992	1992	진분야	월간	본 센터에서 입수된 일본 정부기 관, 연구소, 대학 등의 조사연구성 과 자료 및 전문서적	개요 초록	진문 요원	외국	한국어	제래식	판매	
6	석사·박사학위는 문개요집	경북대학교 (대학원)	1957	1991	진분야	연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한 석사 · 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제래식	비매품	
7	석사·박사학위는 문개요집	부산대학교 (대학원)	1977	1992	진분야	연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한 석사 · 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제래식	비매품	
8	석사·박사학위는 논문초록집	경상대학교 (대학원)	1985	1989	진분야	부정기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한 석사 · 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기술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제래식	비매품	
9	석사학위논문요 약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1991	진분야	연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한 석사 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제래식	비매품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창간 년	종간 년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직성자	수류/사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10	소장동계자료초 록지	통신개발연 구원(경보자 로실)	1987		1991	전분야	격년간	본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의 동계자료	기술 초록	전문 요원	국내의	혼용	재래식 비메종		
11	학위논문개요집	재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73		1991	전분야	부정기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여한 석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메종		
12	학위논문개요집	개명대학교 (대학원)	1973		1990	전분야	부정기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한 석사 · 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메종		
13	학위논문초록	진북대학교 (대학원)	1976		1991	전분야	부정기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국내의	한국어	재래식 비메종		
14	학위논문초록집	공군본부	1987		1987	전분야	부정기	공군본부기 국내의 대학에 위탁 교 육한 장교들의 석· 박사학위 청구 논문	개요 초록	저자	국내의	한국어	재래식 비메종		
15	학위논문 초록집	진남대학교 (대학원)	1983		1985	전분야	부정기	1985년 이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 여한 석· 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혼용	재래식 비메종		
16	한국박사 및 석사 학위 논문총목록	국회도서관	1969		1991	인문·사 회과학	연간	국내 대학에서 수여한 인문·사회 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기술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메종		
17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연구과제 초 록집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86		1988	인문·사 회과학	부정기	본 연구원의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 과제의 보고서	기술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메종		
18	국어국문학총자 료집	경지출판사	1988		1988	국어 국문학	부정기	1980년 이후 전국 대학에서 수여된 국어국문학분야의 석· 박사학위의 청구논문 및 한국문학에 중요하게 관련된 외국문학학위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재래식 비메종		
19	인문과학논문초 록	학술자료개 발원	1990		1991	인문학	격월간	1980년 이후 한국인이 국내외에서 받은 인문학분야의 석· 박사학위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국내의	외국어 (영어)	재래식 비메종	판매	

월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출간 년 월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작성 자	수록기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20	학술연구발표초록 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0	1990	인문학	부정기	본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개 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인문 학분야의 논문	개요 초록	진문 요원	한국	혼용	진신화	비매출 비매출	
21	경영과학논문초록	학술자료개 발원	1990	1991	경영학	격월간	1980년이후 한국인이 국내외에서 받은 경영학분야의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국내외	외국어 (영어)	진신화	비매출	
22	교육학·사회학위논 문 초록집	인하대학교 (교육대학 원)	1986	1986	교육학	부정기	1980년이후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에서 수여한 석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출	
23	교육학·사회학위논 문 초록집	한국교육개 발원	1980	1989	교육학	부정기	1980년이후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교육분야의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개요 초록	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출	
24	국내여성관련 석·박 사 학위논문 초록집	한국여성개 발원	1989	1989	여성문제	부정기	1975년이후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여성관련 석·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판매	
25	국토개발연구원 연 구보고서 초록	국토개발연 구원	1992	1992	경제학	연간	본 연구원에서 출판된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번역자료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출	
26	국토개발연구원지	국토개발연 구원	1983	1988	경제학	부정기	본 연구원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실 적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출	
27	사회과학논문초록	학술자료개 발원	1990	1991	사회과학	격월간	1980년이후 한국인이 국내외에서 받은 사회과학분야의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국내외	외국어 (영어)	진신화	판매	
28	소비자관련학위논 문 초록집	한국소비자 보호원	1988	1988	경제학	부정기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소비자 관련 석·박사학위의 청구논문과 교수의 논문	개요 초록	진문 요원	한국	혼용	재래식	비매출	
29	전국 각 대학 신문 학 석박사학위 논문 요약집	서울대학교 (신문 연구소)	1985	1991	언론	연간	국내대학 신문발행과정에서 수여 된 석·박사학위의 청구논문중 신 문학분야의 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출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장간 년	종간 년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특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작성자	수특기사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30	KRIHS Abstracts of Re- search Reports	국토개발연 구원	1987	1991	경제	각년간	본 연구원에서 출판된 연구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외국어 (영어)	재래식	비매품		
31	과학기술문헌정보: 선택해당기술	시스탬공학 연구소	1992	1992	선박, 해 양기술	연간	본 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 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과학기술 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선박해 양기술부분의 문헌	개요 초록	저자	외국	외국어	전산화	비매품	「KWIC」 색인절부	
32	국내에너지문헌초 록집	한국동력자 원연구소	1981	1985	에너지	부정기	국내에서 발표된 에너지관련 연구 보고서(원자력분야 제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품		
33	국립환경연구원보	국립환경연 구원	1979	1992	환경	연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과제의 보 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품	편집 인쇄 과정 전산 화 예정	
34	기술문서 (TM) 초 록지	한국전자통 신연구소(기 술정보센터)	1992	1992	전자 통신	계간	본 연구소 기술정보센터에 접수된 기술문서	기술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35	농업과학연구논문 초록지	충북대학교 (농업과학연 구소)	1988	1991	농학	부정기	본 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간 행하는 "농업과학연구보고"지에 수록된 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품	구조체·농 업과학연구 보고논문 초록집	
36	농업분야학사학위 논문초록집	농촌진흥청	1974	1988	농학	부정기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농업분야학 사학위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품		
37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보고서초록집	에너지관리 공단	1991	1991	에너지	연간	본 공단에서 수행된 대체에너지기 술개발사업의 과제보고서	기술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품		
38	대한토목학회논문 초록지	대한토목학 회	1982	1982	토목 공학	부정기	1947년 이후 "대한토목학회지"에 발표된 기사	개요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품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창간 년	종간 년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작성자	수록기사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39	DOCUMENT 총 합초록지	한국전자통신연구소(기 술정보센터)	1985		1991	전자· 통신	연간	본 연구소 기술정보센터에 입수된 연구보고서와 기술메모	기술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40	반도체특허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소(기 술정보센터)	1992		1992	반도체	월간	한국, 일본, 미국에서 출원, 공개, 공고된 반도체분야 특허	개요 초록	전문 요원	외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41	보건학·예방의 석· 박사학위논문요약 집	연세대학교	1988		1988	보건학· 예방의학	부정기	1961년 이후 본 대학교 대학원 보건 학과에서 수여된 석·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외국어 (영어)	제대식	비매품	
42	세미나기초초록집	강원대학교 (유전공학연 구소)	1979		1991	유전공학	부정기	본 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에서 개 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유전 공학분야의 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전산화	비매품	
43	연구논문초록집	서강대학교 (기초과학연 구소)	1970		1990	자연과학	연간	본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소속교 수들이 발표한 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제대식	비매품	
44	연구논문초록집	서강대학교 (산업기술연 구소)	1977		1992	기술과학	연간	본 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소속교 수들이 발표한 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제대식	비매품	
45	연구논문초록집	한림대학교 (자연과학연 구소)	1992		1992	순수과학	연간	본 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소속교 수들이 국내외 학술잡지의 대략는 문집에 발표한 주요 논문	개요 초록	저자	국내외	혼용	전산화	비매품	
46	연구보고서초록집 ·특장, 기본 및 공 임기반기술과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89		1989	기술과학	연간	본원에서 연구된 화학회공, 금속재 료, 기계, 전기전자, 공업경제, 전 자계산분야 연구의 보고서	기술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창간 년	종간 년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작성지	수록기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47	연구보고요약집	서울대학교 (공학연구 소)	1987		1987	기술과학	부정기	본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보고서	개요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48	연구보고초록집	한국전기연 구소	1989		1991	전기공학	부정기	본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1978년 이후 발표한 학술논문	기술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재래식	비매품	
49	작물보호분야연구 논문초록집·농작물 병해, 농작물해충	농촌진흥청 (산업기술연 구소)	1987		1987	농학	부정기	195년 이후 국내 각 시험장 연구소 와 대학에서 이루어진 작물보호분 야 연구의 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재래식	비매품	
50	산업연구논문초록 집	농촌진흥청	1977		1977	농학	부정기	1914년 이후 국내 작업분야 시험연 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보고 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재래식	비매품	
51	대표·부품특허정보	한국전자통 신연구소 (기술정보센 터)	1992		1992	대표· 부품	월간	한국, 일본, 미국에서 출원, 공개, 공고된 재료·부품분야의 특허	개요 초록	전문 요원	국내외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52	채미 한국과학기술 자 논문 및 특허 초 록집	한국과학채 단(채미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1978	1978		과학기술	부정기	채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원들 이 쓴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특허	개요 초록	전문 요원	외국	외국어 (영어)	재래식	비매품	
53	출연·기본연구보고 서초록집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1988		1988	과학기술	부정기	본 연구소에서 수행된 정부출연 및 기 본 연구과제 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54	KAERI 간행물목 록	한국전자력 연구소(기술 정보실)	1989		1989	에너지	부정기	본 연구소에서 발행된 각종 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	기술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55	컴퓨터특허정보	한국전자통 신연구소(기 술정보센터)	1992		1992	전산화	월간	한국, 일본, 미국에서 출원, 공개, 공고된 컴퓨터분야의 특허	개요 초록	전문 요원	국내외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창간 년	최근동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직상자	수록기사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56	특이비료분야연 구논문	농촌진흥청 (산림기술연 구소)	1986	1986	농학	부정기	1953년 이후 국내 각 시험장 연구소 와 대학에서 이루어진 토양비료분 야 연구의 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체재식	비매품	
57	통신특허정보	한국전자통 신연구소(기 술정보센터)	1992	1992	통신	월간	한국, 일본, 미국에서 출원, 공개, 공고된 통신분야의 특허	개요 초록	전문 요원	국내외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58	특장연구보고서 초록집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988	1988	과학기술	부정기	본원에서 수행된 특장연구사업 중 국가주도과제 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한국어	전산화	비매품	
59	특허정보:전자· 통신·반도체	한국전자통 신연구소 (기술정보센 터)	1985	1992	전자, 통신, 반도체	월간	한국, 일본, 미국에서 출원, 공개, 공고된 전자통신분야의 특허	개요 초록	전문 요원	국내외	한국어	체재식	비매품	1992년부터 통신, 반도체, 체, 컴퓨터, 체표, 부품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발행
60	학술발표초록집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 구소)	1983	1992	농학	부정기	본 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개 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농업 분야의 논문	개요 초록	전문 요원	한국	혼용	전산화	비매품	
61	한국과학기술원 학위논문초록집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975	1992	과학기술	연간	본 원에서 수여된 석·박사학위의 청구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외국어 (영어)	전산화	비매품	
62	해사기술문헌수 보	한국기계연 구소(대덕산 학분소)	1982	1983	선박, 해양	격월간	본 연구소에서 복사 제공할 수 있 는 소장자료로서 "Ship Abstracts", "Journal of Abstracts", "MRIS Abstracts" 등 해사관계 외국초록지에 포함된 초록	개요 초록	저자	외국 (영어)	외국어 (영어)	체재식	비매품	
63	화학특허정보초 록	한국화학협 회	1985	1992	화학공학	월간	일본 화학회사들이 등록한 특허중 국내 화학산업과 관련된 것	기술 초록	전문 요원	외국 (일본)	외국어 (일본어)	체재식	비매품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창간 년	종간 년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작성자	수록기사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64	환경분야 연구논문 초록집	국립환경연구 구원	1983		1990	환경	격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환경분야 연구논문과 박사학위논문	개요 초록	저자	한국	혼용	재래식 비매품		
65	Abstracts of KAERI Papers & Reports	한국원자력 연구소	1978		1983	원자력	부정기	본 연구원에서 수행된 원자력관계 연구과제의 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외국어 (영어)	재래식 비매품		
66	Abstracts of Korean Ginseng Studies	전매청	1975	1987		인삼	부정기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수집, 편집한 외국에서 발표된 인삼에 관한 논문	개요 초록	저자	외국	외국어 (영어)	진산화 비매품		
67	Annual Re- search Abstracts of RIST	산업과학기 술연구소	1989		1991	순수과학	연간	본 연구소의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 결과 보고서	기술 초록	저자	한국	외국어 (영어)	재래식 비매품	1987~88년 판은 국어· 영어 혼용 표 제도 "연구 보고서초록 집"	
68	Catalog of Reports on En- ergy and Resources :R&D at KIER	한국동력자 원연구소	1984		1986	에너지 자원	부정기	본 연구소에서 수행된 동력자원 관 제 연구과제의 보고서	개요 초록	저자	한국	외국어 (영어)	진산화 비매품	1977~84년 판의 표제는 "Catalog of Reports on Energy :R&D at KIER"	
69	KIMM Reports & Papers Abstracts	한국기계연 구소	1985		1985	기계공학	부정기	본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연구보고 서에 발표된 기계, 금속, 조선 관계 논문	기술 초록	전문 요원	한국	외국어 (영어)	재래식 비매품		
70	Korean Medi- cal Abstracts	산업기술경 보원	1970		1992	의학	계간	80여종의 신장된 국내 의학잡지와 기타 저널속에 발표되는 의학관계 논문	개요 초록	전문 요원	한국	외국어 (영어)	진산화 비매품		

일련 번호	표 제	발행기관	창간 년	종간 년	최근호 발행년	주제	발행 빈도	수록기사의 내용과 범위	종류	작성자	수록기사 출판지	언어	편집· 인쇄방법	배포 범위	특기사항
71	Korean Patent Abstracts	특허청	1979		1992	과학기술	부정기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특허	개요 초록	전문 요원	한국	외국어 (영어)	전산화	비매품	
72	Korean Scientific Abstracts	산업기술청 보원	1968		1992	과학기술	격월간	50여종의 선정된 국내 과학기술잡 지와 기타 자료속에 발표된 연구보 고서	개요 초록	전문 요원	한국	외국어 (영어)	전산화	비매품	

ABSTRACT

Abstracting Services in Korea

Sung-Ji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investigate in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bstracting services in Korea and to discuss general directions of development of the abstracting services in the country. This study is designed to achieve the purpose by gathering and analysing data related to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the past ten years an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similar data gathered by the investigator in 1984. The major conclusions made in this study is summarised as follows.

(1)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working in limited numbers of subject fields are benefited by abstracting services of recent achieve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Those in most of the fields have essentially no abstracting services of such achievements. Even many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in the limited numbers of the fields that have some elementary abstracting services are not informed of research results in their fields because the abstracting journals are scattered in many narrow subjects and in many cases, the abstracting journals only cover publications in some specific forms and kinds.

(2) Abstracting journals of general subjects, which are supposed to be of more or less help to the researchers in the subject fields that have no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ing journals of their own, have rapidly increased in number in the past ten years. Most of such abstracting journals carry thesis and dissertation abstracts, and the rest those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specific places, in specific forms, by specific institutes, and of reports of research projects sponsored by specific foundations. These abstracting journals are not of the kind that comprehensively provide general readers with current awareness of pub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in Korea.

(3)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existing in Korea are published by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est by commercial publishers, industrial firms, libraries, information centres,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foundations, learned societies, etc. Those which publish many titles are small in number and those publish one or two titles are large in number. The former is largely made up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4) Ten years ago, there was not a single publishing house that produced abstracting journals. Three commercial publishing houses now produce abstracting journals. As this change occurs, centres of excellence are founded and competitive elements are introduced in abstracting services. This change, in turn, is expected to improve quality of the other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5)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re classified by type into those of dissertations, research papers, journal articles, patent specifications in that descending order. The fact that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s are dominating in Korea is due to the irrational practice of publishing those abstracts at many institutions.

(6)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existing in Korea are published by national or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order to publicise their own research outputs. Their coverage of literature is normally narrow, and naturally their value to users is limited.

(7)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ncreased in number at the rate of 77.8 - 100% every five years in the past twenty-five years.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that ceased to be published during the period survived for two years.

(8) Korean is the desirable language for the abstracting journals designed to be distributed within Korea. About half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s printed in Korean and the other half in foreign languages, and in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All the abstracting journals in foreign languages are printed in English except one, which is printed in Japanese.

(9) Some twenty percen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is published monthly, bimonthly, and quarterly. Others are published annually, biannually, and irregularly. The latter may not function properly as a current-awareness tool due to long intervals between their issues. It is particularly undesirable that about half of the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is published irregularly.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re distributed freely to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selected by the publishers.

(10)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by the use of computers increased drastically in the past ten years. The abstracting journals produced by the conventional type-setting method will probably disappear

in Korea in another ten years to come. Automation of the production of abstracting journals does not simply mean technical, economic improvement of publishing processes but availability of machine-readable databases that can be used for other purposes, including the generation of other publications and the provision of machine literature searching capabilities. Necessary steps should be taken for this important development that is occurring in the abstracting services in Korea.